메시지 3

# 아가의 세 번째 단계 —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음

성경: 아 3:6–5:1

**Ⅰ. 그리스도의 연인의 체험의 세 번째 단계는 승천 안에 살도록 부름받아,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인 그리스도의 아름답게 된 연인이 되는 것이다 — 아 3:6–5:1.**

**Ⅱ.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부터 갑시다. /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 사자들의 굴에서, / 표범들의 산에서 바라봅시다."(아 4:8)**

A.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에 머물도록 그분의 연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승천 안에 살도록 그녀를 부르신다 — 아 2:14.

1.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레바논)에서, 즉 진리(아마나)의 가장 높은 지점과 그리스도의 싸움에서의 승리('부드러운 갑옷'을 의미하는 스닐과 '멸망'을 의미하는 헤르몬)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원수들의 처소(사자들의 굴과 표범들의 산)에서 그분과 함께 바라보자고 그분의 신부인 연인에게 요청하신다.
2. 그리스도의 연인이 승천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녀와 그리스도는 승천이라는 한 상태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쌍의 부부이다. 그들은 생명과 본성에서 동일하며 완전하게 서로 어울린다.

B. 승천 안에 사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늘들에 계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 엡 2:22, 창 28:12–17, 요 1:51, 계 4:1–2, 히 4:12, 16.

C. 우리는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숨기를, 다시 말하면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숨기를 배워서 그분을 우리의 거처로 삼아야 한다 — 시 91:1, 14–16, 비교 아 2:14.

1.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한 체험이다 — 시 90:1–2.
2.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 일생이 짧고 죄들과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시 90:3–12.
3.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매 순간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 밖에는 죄들과 고통뿐이기 때문이다 — 시 90:8, 요 16:33.
4.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인 우리의 영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의 영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입받아, 아름답게 된 새 창조물이 된다 — 엡 2:22, 롬 8:6, 시 27:4, 사 60:7하, 19하, 62:3, 아 3:11, 잠 12:4상.

**Ⅲ. "솔로몬왕이 자신을 위해 /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네. / 그 기둥들은 은으로, / 바닥은 금으로, 자리는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 그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의 / 사랑이 아로새겨져 있었다네." (아 3:9–10)**

A.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위해 그리스도의 탈것, 그리스도의 '자동차'인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그릇이 된다 — 비교 고후 2:12–17.

B.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재건축되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인성이 우리의 외부 골격이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내부 장식이 된다 — 아 3:9–10.

1. 솔로몬, 곧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한 가마로 만드신다. 우리의 책임은 다만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 요 21:15–17, 시 110:3.

2. 우리의 내적 존재에 '사랑이 아로새겨져야' 한다(아 3:10).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지니는 영역 안에 지켜질 것이고, 우리의 인성은 강권하는 그분의 애정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 고후 5:14.

C. 우리가 개인적이고 다정하며 내밀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허물어지고,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은으로 만든 기둥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받침대)과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생명 주시는 영(자주색 자리)으로 개조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영의 다스림 안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 이루어진다 — 아 3:10, 비교 롬 8:28-29, 고후 4:16-18.

**Ⅳ.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분만의 동산이 된다 — 아 4:10-15.**

A.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 그대의 관유 향기는 / 온갖 향료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 아 4:10.

1. 추구하는 이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추구하는 이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보배롭게 여기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다 알 수 없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도 그분께서 으뜸이시라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아 1:2, 롬 8:37, 고후 5:14.
2. 추구하는 이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영으로 적셔지고, 그 영께 복종함으로써 그 영에 의해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 아 4:10하, 11하, 요 12:3, 고후 2:15.

B.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 아 4:11상.

1.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둘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이다 — 신 8:8, 32:13-14, 요 1:29, 12:24, 마 26:26-28.
2. 특별히 우리가 영이 약하여 주님을 체험하고 적용하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께서 젖과 꿀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과 달콤함을 느끼게 된다 — 고후 12:9-10.
3. 꿀은 상처받은 이들을 회복하고, 젖은 새로 태어난 이들을 먹인다. 추구하는 이는 자기 안에 매우 많은 풍성을 저장하여 마치 혀 밑에 양식을 간직한 것 같으며, 어느 때에나 궁핍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분배할 수 있다 — 사 50:4, 엡 4:29, 시 45:1-2.
4. 이러한 달콤함은 하룻밤 사이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모으고 내적으로 활동하며 주의 깊게 저장한 데서 온다 — 비교 출 29:30, 시 92:13-14.

**Ⅴ.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 / 덮인 우물, 봉해진 샘. / … 그대는 동산들의 샘, / 생수의 우물, /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라오."(아 4:12, 15)**

A. 주님을 사랑하는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영적 진보의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만의 만족을 위한 동산이 되었다. 그녀는 열린 동산이 아니라 잠긴 동산, 봉해진 동산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그녀가 사랑하는 분의 기쁨을 위한 것일 뿐 다른 어떤 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1. 믿는 이들이 자신을 조금 더 잠그고 조금 더 단단히 봉한다면, 그들의 일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은밀하게'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시기 바란다 — 마 6:6, 13:20-21.
2. 교회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깊은 생활, 곧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생활이다 — 사 37:31.

B.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창 2:8) 성경에 따르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생각하신 것이었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즐겁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셨음을 가리킨다.

C. 교회생활은 하나님의 동산 곧 하나님의 농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풍성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게 한다 — 창 2:8, 골 1:10, 2:19, 고전 3:9, 계 22:1-2, 비교 출 25:31-32.

D.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며 지키게 하셨다' — 창 2:15.

1. 사람이 땅을 일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첫째 방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이 자라도록, 특별히 생명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이다. 땅을 일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자라실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창 1:26상, 마 13:3-23.
2. 사람이 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의 둘째 방면, 즉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여 사탄을 처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동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땅을 지키는 것은 지식나무 곧 죽음의 나무인 사탄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 창 1:26하, 고후 5:4, 11:3, 고전 15:26, 비교 레 5:2.

E.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린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다 — 아 1:12-14, 4:12-14, 5:1.

F. 이 동산에는 샘(곧 원천)과 생수의 우물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샘이시고, 아들 하나님은 우물이시며, 영 하나님은 흐르는 시내들이시다. 이로써 우리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 아 4:15, 요 4:14하.

G. "북풍아, 깨어나라. / 남풍아, 오너라. / 나의 동산에 불어서 / 그 향기를 날려" — 아 4:16상.

1. (차갑고, 혹독하고, 매섭고, 견디기 힘든) 북풍과 (따뜻하고, 부드럽고, 상쾌하고, 유쾌한) 남풍은 주님께서 믿는 이들이 그분을 충족함의 비결로 누리도록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는 두 가지 다른 환경이다 — 빌 4:11-13, 5-7, 1:20.
2. 주님을 추구하는 이는 모든 문제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추구하는 이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으로 충만한 한, 어떤 환경에서든 기쁘게 그리스도를 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2026 Living Stream Ministry*